

과장 승진 싫다는 현대차 대리들

사무직들 인사 앞두고 고민

현대자동차 일반직(사무직) 대리 6년차인 A씨(35)는 내년 인사를 앞두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동료들 못지않은 인사고과 점수도 받아와 과장 승진 대상자 서열의 앞쪽에 있는 그가 왜 고민에 빠졌을까.

그의 고민은 승진에 목을 매는 대다수 회사원과 정반대로 승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다.

“승진하면 연봉이 오르겠지만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고용불안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상당수 동료도 승진으로 인한 혜택보다 노조의 보호막에서 제외된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이 A대리만의 것이 아니라 건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소식을 통해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시 강제 승진 발령 없다’라는 제목 아래 “강제 승진 관련 일반직 조합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원이 의사에 반해 강제 승진이 되지 않도록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높은 자리보다 일자리

노조원 자격 잃어 고용 불안

정년 연장돼도 혜택 못 받아

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회사와의 합의사항도 상기시켰다. 현대차의 경우 일반직은 과장 승진과 동시에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제때 승진

할 경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즉시 연봉이 1000만원쯤 올라간다. 다만 고참 대리의 경우 승진하면 그동안의 근속연수가 무효화되고 새로 과장 1호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봉 차이가 별반 없거나 되레 깎이는 등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

연봉 1000만원 오른다지만

고참 대리는 깎일 수도 있어

노조 “원치 않는 승진은 없다”

다. 노조원들이 과장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고용불안이가장 크다. 회사가 자르기로 마음먹으면 근무지를 벽지로 돌리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노조원으로 남아 있으면 울산 1공장에서 2공장으로 단순히 자

리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노조 보호막 아래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조합이 부당한 배치 전환이라고 생각할 경우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등 조합원 인사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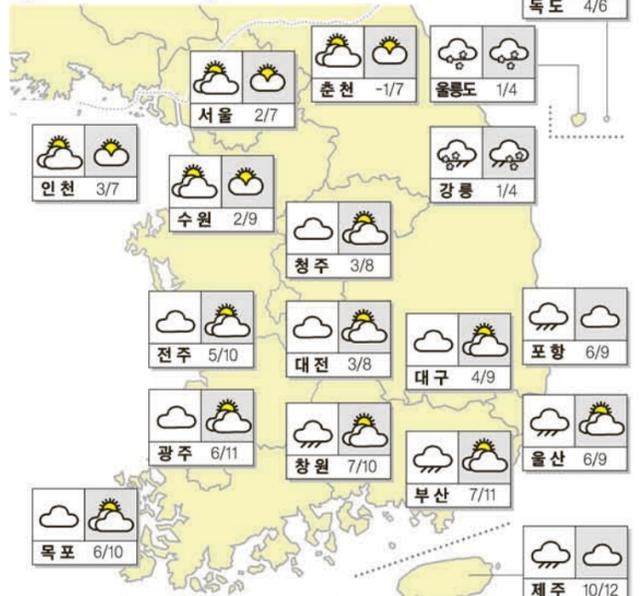
노조원 B씨(50)는 “특히 올해 노사 간 입단협에서 합의한 ‘회사가 필요할 경우 정년(59세)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비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도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은 고용안정 등에서 노조의 보호막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keyone@joongang.co.kr

오늘의 날씨 12월 1일 목요일 음력 11월 7일

아침기운 낮아 쌀쌀... 동해안에는 비는

☀ 해돋이 07:27 / 해질 17:14 🌙 달돋이 12:00 / 달짐 23:31



서해남부 오전 앞바다 / 1.5~3m 오후 앞바다 / 0.5~1.5m	동해남부 오전 앞바다 / 4~6m 오후 앞바다 / 3~5m	제주 오전 앞바다 / 2~4m 오후 앞바다 / 3~5m
서해서부 오전 앞바다 / 1.5~2.5m 오후 앞바다 / 0.5~1.5m	남해서부 오전 앞바다 / 2~3m 오후 앞바다 / 2~3m	한조·간조 인천 08:38 21:02 02:49 14:47 군산 07:03 19:26 01:42 13:37 목포 06:04 18:46 11:13 - 여수 00:48 13:26 06:44 19:49 부산 00:43 13:07 06:32 19:26 울산 11:02 - 05:06 17:43 포항 06:57 22:50 02:03 15:10 속초 06:23 21:08 00:57 14:07 제주 02:23 15:29 08:58 22:12

두 번 죽는 별 ... 43억 광년 떨어진 우주서 포착

한국과학자 참여 10개국 팀

별의 새로운 최후 모습 관측

‘네이처’ 최신호에 논문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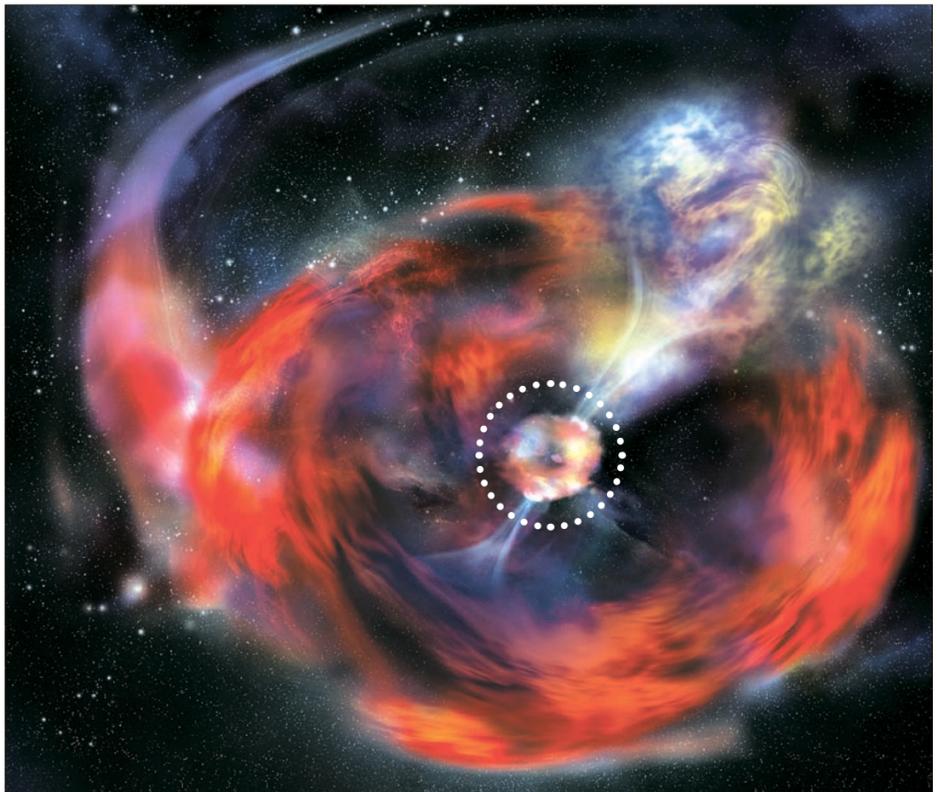


임명신 교수 박수종 교수

별은 태어난 뒤 마지막으로 한 번 폭발해 최후를 맞이한다. 그동안은 별이 초신성(超新星)으로 폭발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거나, 백색왜성(白色矮星)으로 변하는 두 가지 죽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신성은 늙은 별이 폭발하며 큰 에너지를 뿜어내는 현상, 백색왜성은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죽어가며 만드는 천체를 가리킨다. 하지만 별이 두 번 폭발해 두 번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임명신(44)교수와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박수종(44) 교수 연구팀을 포함한 미국·스페인 등 10개국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5일 발견한 감마선 폭발(Gamma Ray Burst) 관측 자료를 분석한 이런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논문은 영국의 학술지 네이처 1일자에 실렸다.

감마선 폭발은 별이 엄청난 양의



감마선 폭발 상상도. 바깥쪽 넓게 퍼진 붉은색은 윗부분에서 침투한 중성자별이 흐트러뜨린 별의 대기며, 안쪽 중앙은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의 중심핵과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점선 부분) 여러 물질이 담배 연기처럼 퍼지는 모습이다. [미국 소노마 주립대 제공]

감마선 빛을 내며 폭발하는 현상인데 보통 별이 죽을 때 일어난다. 지금까지 여러 번 관찰됐으며, 지속 시간은 몇 초~몇 분에 불과했다. 감마선은 X선이나 적외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일종이다.

지구로부터 약 43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이번 ‘감마선 폭발’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맨 처음 그 폭발을 잡은 것은 미국의 스위트 위성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GRB 101225A’라고 이름을 붙였다. 폭발 직후 세계 천문학자들은 지상 망원경으로 폭발 현상

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X선·적외선 등을 포착해 분석에 들어갔다. 한국 연구팀은 자체 개발해 미 텍사스주 맥도널드 천문대에 설치한 우주 관측용 카메라 ‘시퀀(CQUEAN)’으로 관측했다. 박병주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취재일기

사실 확인도 않고 ... ‘FTA 괴담 소설’ 퍼나르는 정동영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FTA를 막은 실제 사례’라면서 에코도르의 예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에코도르는 국민적 저항이 폭발하면서 루시우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로 등장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굴복해(비준된) FTA를 ‘파기’했다. 에코도르도 했는데 한국 국민이 못해낼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의 트위터에는 지난달 26일 “에코도르 국민은 비준된 협정을 무산시켰습니다”는 글이 올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서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 왔다. 아이디 ‘eyey0311’이라는 트위터란이 올린 글이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mb(이명박) 대통령도 서명 말라!”고 리트윗으로 화답했다.

정 최고위원 주장처럼 에코도르에 선 정말로 국민이 대통령을 ‘축출’하고 비준된 협정을 무산시킨 일이 있었던 걸까. 확인 결과 정 최고위원의

언급 중 ‘사실’인 부분은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물러난 것 딱 하나뿐이었다. 우선 에코도르와 미국은 FTA를 비준한 일이 없다. FTA가 비준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의 ‘파기’를 위해 국민이 들고일어났다는 얘기가. 국민이 들고일어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축출시키나.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다.

두 나라가 FTA 협상을 벌였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건 에코도르가 아닌 미국의 선택 때문이었다. 미국은 에코도르 정부가 미국 석유회사 옥시덴탈과의 사업계약을 취소하고 이 회사 자산을

날씨와 건강

☀ 낮음 ☀ 보통 ☀ 높음

뇌졸중지수 관심 가지세요	체감온도 추위로 불편함 커져요	피부질환지수 관심 가지세요
감기지수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폐질환지수 만성환자는 주의하세요	천식지수 관심 가지세요

모유 수유 시 약물 복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약물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약을 복용하며, 수유한 직후 약을 먹은 뒤 최소 4시간 뒤 다시 수유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시보라매병원(www.brnm.org) 제공]

인버터 절전 전기료 최대 73% 절감!

LG WHISEN 시스템에어컨

압류한 것에 항의해 2006년 5월 에코도르와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에코도르의 새 대통령이 국민의 압력을 받아 비준된 FTA를 파기한 게 아니라는 거다.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유도 판 데 있다. 그는 자신을 부패 혐의로 탄핵하려 했던 대법관 27명을 면직하는 게 국민적 저항을 불러 물러나야 했다. 정 최고위원은 집권여당 대표와 장관,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인사다. 그런 비중 있는 정치인이 트위터에 올랐던 ‘확인 안 된 사실’, 아니 거짓을 동료 의원들에게 퍼나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정 최고위원은 30일 최

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나 정정(訂正) 대신 “말은(FTA) 협정 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산 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승리’라고 했던 일이 연상된다.

bim@joongang.co.kr

허진
정치부 기자